

한중경제포럼

제08-03호 2008년 6월 30일

인민폐 절상의 중국 내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

2008년 제3회 한·중경제포럼¹⁾

1. 주제 : 인민폐 절상의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
2. 일시 : 2008. 6.12(목) 14:00~18:00
3. 발표자 :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연구센터 귀티엔용(郭田勇) 주임
중국인민은행 통계사 장도우(張壽) 사장

1. 인민폐 절상의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²⁾

□ 중국 내 수출기업들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나, 최근 인민폐의 급속한 절상과 긴축 통화정책의 여파로 중소형 수출기업은 이윤감소와 자금부족에 직면하고 있음.

□ 이에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연구중심은 최근 수출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민폐 절상이 수출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정책적 건의를 제출함.

- 본 조사의 대상은 주로 랴오닝(遼寧), 허베이(河北), 텐진(天津), 산둥(山東), 장수(江蘇),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푸젠(福建), 광둥(廣東), 광시(廣西) 및 하이난(海南) 등 省과 市의 수출기업으로 함.

1) 제3회 한·중경제포럼은 중앙재경대학과의 공동세미나(“인민폐 절상의 중국 내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 2008.6.12)로 대체함.

2)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연구센터 귀티엔용(郭田勇) 주임의 발표 내용임.

- 총 조사 대상 기업수는 1,900개이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중소형 수출기업 1,780개를 본 연구과제의 샘플로 정함.

가. 인민폐 환율 추이

- 2005년 7월 환율제도 변경 이후 달러 대비 인민폐 절상 속도가 점차 가속화 되었는데, 현재까지 달러 대비 인민폐의 누계 절상률은 18%에 달함.
- 반면 유로화 대비 인민폐는 절하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5년 환율제도 변경 이후 지금까지 유로화 대비 인민폐의 절하율은 약 10%
- 2006년 연간 유로화 대비 인민폐 절하율은 5.74%, 2007년 연간 절하율은 3.78%. 2008년 1~3월 유로화 대비 인민폐 누계 절하율은 3.91%로서 2007년 절하율을 초과하고 있음.
- 그러나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유로화 대비 인민폐는 1.64% 절상됨에 따라 유로화 대비 인민폐 절하 추세가 역전될 것으로 예측됨.

나. 인민폐 절상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인민폐 절상은 기업의 생산 원자재 원가를 대폭 줄이지 못함.

- 중국 중소형 수출기업의 원자재는 주로 국내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국내자원 등 원자재의 공급이 대부분 중소형 수출기업의 생산원가를 결정함.
- 전체 1,780개 샘플기업 중 88.2%에 해당하는 1,570개 수출기업이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
- 국내 원자재 가격이 상승 추세를 지속함으로써 대부분 중소형 수출기업의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 유지
- 대부분의 수출기업은 장기계약의 형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신속히 제품가

격에 반영하기 힘들.

- 또한 중국의 대부분 중소형 수출기업은 규모가 작고 자주 브랜드가 없어 국외 대형 수입기업과의 가격 협상능력이 약해 원가상승이 수출가격에 반영되기 어려움.
- 국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도 중국의 수출기업은 독점적인 대규모 국제 자원기업이 제시하는 고가의 원자재 가격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음.
- 인민폐 절상 폭은 국제자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 폭보다 작아 인민폐 절상으로 인해 감소된 원자재 원가는 수출원가의 압력을 감당할 수 없음.

2) 수출기업 이윤율이 보편적으로 낮음.

□ 이번 조사대상 수출기업 57%(1,015개)의 세후 이윤율이 주로 3~5%에 불과하였는데, 이처럼 수출기업의 이윤율이 낮은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중국 수출제품은 여전히 기술수준이나 부가가치가 낮고, 대부분 수출기업은 단순한 가공무역기업으로서 이윤율이 높지 않음.
- 둘째, 현재 중국 수출기업 대부분이 중소형 규모로 기업자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총 교역규모의 확대에 따른 수출가격 협상능력이 향상되지 않아 수출가격 상승을 통한 이윤확대가 어려움.
- 셋째, 국내노동력 원가의 상승 및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국가가 자국 가공무역을 장려함에 따라 중국 수출기업의 시장이 축소됨.
- 넷째, 중국정부가 전통업종에 비해 첨단기술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다섯째,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또한 여타 선진국들의 기술, 관세 등 장벽으로 중국의 수출원가가 높아짐.

- 여섯째, 중국의 수출기업은 대부분 달러로 결산하는데, 인민폐의 지속적인 절상은 수출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킴.

3) 수출기업의 이윤 증가율 둔화

- 노동비용 상승을 포함 생산원가 상승, 수출환급세 하향 조정, 대외경제여건 변화(선진국 경제성장 둔화, 일부 신흥국가들의 경쟁력 향상 등), 인민폐 절상 가속화 등의 이유로 수출기업의 이윤 증가율 속도가 둔화

4) 수출기업의 생산원가 증가율이 비교적 높음.

- 조사대상 수출기업 가운데 83%가 생산원가 증가율이 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중국의 수출기업들의 생산원가 상승의 주요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노동원가 상승이며, 원자재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수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 줄 것으로 보임.

5) 수출기업의 인민폐 절상에 대한 용인도(容忍度)가 비교적 낮음.

- 이번 조사 결과, 수출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인민폐 절상 폭은 전체의 39.7%에 달하는 707개 기업이 2%이하(2%포함)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2~4%(602개 기업, 전체의 33.8%), 4~5%(340개 기업, 19.1%), 5~6%(88개 기업, 4.95%), 6%이상(43개 기업, 2.42%) 순으로 나타났음.

6) 대부분의 수출기업은 인민폐 절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

- 인민폐와 달러, 유로, 엔화 등 주요 국제화폐간 환율 추세를 묻는 질문에 60.8%의 수출기업이 달러, 유로, 엔화 대비 인민폐 절상이 지속 될 것이라고 응답

7) 대부분의 수출기업이 인민폐 절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인민폐가 계속 빠르게 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취할 대처방안을 묻는 조사결과, '기술개발과 노동생

산성 제고를 선택한 기업이 59.9%로 나타남.

- 또한 '임금억제와 원가절감을 통한 생산'과 '임금동결, 해고를 통해 생산을 선택한 기업이 10.5%로 나타났다.

- '회사매각을 통한 자금회수'와 '생산중지, 파산을 선택한 기업은 각각 5.24%와 3.75%에 그침.

□ 인민폐 절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59.9%의 기업이 '기술개발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대처방안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중국의 수출기업이 적극적으로 근본적 해결 방법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

다. 정책 건의

□ 인민폐 절상, 대외경제 여건 변화, 건축 통화정책 등의 요인으로 중소형 수출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대출과 기술개발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지원해야 함.

- 중소형 수출기업의 내륙이전을 위해 자금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

□ 인민폐 절상과 수출기업의 산업 업그레이드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

- 수출 기업은 중국의 과잉노동력을 흡수하고, 지역격차와 도농격차,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기업의 성장을 위한 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함.

□ 인민폐 절상은 수출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환율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점진적이며 통제 가능해야 한다' 는 원칙에 근거 해야함.

□ 인민폐 절상이 국내통화팽창 억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수출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함.

- 무역흑자 축소를 위해 지나치게 인민폐 절상정책에 의존해서는 안됨.

□ 외환 파생상품 시장을 발전시켜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외환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함.

□ 수출기업 간 과당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이 절실함.

2. 최근 중국경제의 문제점 및 환율 정책 전망³⁾

□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및 대외교역 추세

- 중국경제의 고성장은 투자와 수출의 확대에 기인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과열과 통화팽창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일부에서는 심지어 경기 경착륙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좋고 빠른(又好又快)’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견해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중국과 여타 신흥국가들의 경제발전 비교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한국,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기타 국가들과 비슷하게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룩

- 중국은 이들 국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선진 자본 및 기술 도입으로 경제성장을 구가

- 2005~2007년 중국의 대외무역은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무역수지 흑자액은 2005년 1,000억 달러에서 2006년과 2007년 각각 1,700억 달러, 2,600달러로 증가

3) 중국인민은행 통계사 장토우(張濤) 사장 발표 내용임.

- 무역수지 흑자의 급속한 증가는 중국경제 성장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무역 흑자, 대량의 외자유입은 유동성 과잉 문제를 낳고 있으며, 유동성 과잉문제의 해소가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임.

□ 수출기업의 이윤문제

- 최근 수출기업의 이윤 감소 현상이 뚜렷하며, 이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임금상승이 주요 원인이며 인민폐 절상 또한 수출기업의 이윤하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 이를 극복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국 수출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임.
- 개인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인민폐 절상 등 수출기업이 직면한 문제들은 경제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고 파악됨.

□ 인민폐 환율 변동 문제

- 중국은 지속적으로 변동환율제를 유지해 나갈 것임. 환율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인민폐 절상의 속도 또한 시장에서 결정 되는 것임.

3. 주요 토론 내용

가. 인민폐 절상과 수출기업⁴⁾

- 인민폐 절상에 따라 수출기업의 압력이 커지고 나아가 수출기업이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에 주는 압력도 부단히 커지고 있음. 일본도 중국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경험이 있음.
- 1980년대 중반 엔화의 대폭 절상으로 수출기업이 큰 압력에 직면함. 일본의 수출기업은 이를 정부와 중앙은행에 이전시켜 일본정부는 재정확대 정책을 실시함.

4)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거시경제연구부 웨이자닝(魏加寧) 부부장

- 이러한 압력으로 일본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고 다른 한편 화폐 공급을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낳게됨.
- 일본의 이같은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일본정부는 엔화 절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고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
- 인민폐 절상도 마찬가지임. 수출기업은 손해를 보는 것은 확실하지만 인민폐 절상으로 인한 이해득실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중국정부는 세계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인민폐를 절하하지 않았음.
- 광둥(廣東), 하이난(海南) 등의 지역에 조사연구 결과 인민폐를 절하시키지 않음으로써 수출기업은 자신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나아가 국가의 산업구조도 고도화됨.
- 10여년이 지난 지금, 당시 아시아금융위기 때 중국이 취한 조치는 일정한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중국의 수출제품 구조, 국가의 산업구조, 기업 경쟁력은 10년 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됨. 아시아금융위기 후 중앙정부는 국유기업개혁을 통해 국유기업 경영상황을 개선했음. 하지만 개혁의 동력도 점차 상실함.
-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개혁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개혁을 가속화해야 함.

나. 인민폐 절상에 대한 대응⁵⁾

- 환율은 장기적으로 양국 간의 경제력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중단기내에 시장균형 환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특히나 대국(大國)간의 환율은 각국의 환율 정책에 따라 결정되었음.

5) 중국은행 개인 금융부 네쥔펑(聶俊峰)

□ 인민폐 절상 압력에 직면한 중국의 대응 조치

- 수출산업의 FDI 우대 정책을 축소하여 중국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해야함.
- 인민폐를 2~3% 정도로 소폭 절상
- 수동적인 인민폐 개방이 아닌 적극적인 개방이 필요
- 국내외 경제정세를 고려할 때 금리와 환율을 인상하면 인민폐 절상 속도와 수출, 경제 성장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음.

□ 자본유동의 부정적 영향은 그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 방향이 갑자기 변하는 것에 있음.

- 1996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등은 30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자본을 흡수 한 후 대규모 자금유출 현상이 나타나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었음.
- 중국은 인민폐 절상을 멈추고 수출과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함.

다. 인민폐 절상과 중국경제⁶⁾

□ 2008년 들어 중국 외환보유고 증가속도가 가속화되고 외환보유고 구조도 뚜렷한 변화를 보임.

- 2000년 이전 외환보유고 증가부분의 2/3정도가 대외무역 흑자임. 그러나 현재 외자유입이 더 많음.
-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에도 외환보유고가 급증하는 것은 국제유휴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인민폐 절상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외자가 중국 계좌에 입금만 시키면 1년에 6%~10%의 이익을

6) 거시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 장쩌옌핑(張建平) 차장

볼 수 있을 것임.

□ 중국의 자본계정을 개방하지 않으면 외화는 반드시 동등한 금액의 인민폐로 태환하여 인출해야 함. 때문에 인민폐 유동성이 너무 커 지급률을 상향조정해야 함.

- 만일 인민폐가 갑자기 대폭 절상되면 대량의 기업이 파산이 우려되고 사회가 불안정하게 됨. 거시경제와 사회의 안정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적절한 대책이 필요

□ 현재 중국의 무역흑자, 외환보유고, 유동성이 매우 높으며 중국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대응 방안이 필요

- 신흥경제 국제화 전략을 실시하여 중국이 주도적으로 세계경제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함.

- 가공무역 원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일부 노동집약형 가공무역을 기타 국가로 이전해야 함.

- 중국은 해외진출을 가속화해야 함. 외환보유고를 해외자산으로 변환하여 해외에서의 생산, 투자, 마케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라. 최근 중국경제 평가 및 한-중 경제관계⁷⁾

□ 최근 중국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고속 성장을 이뤘으며, 2007년 중국은 세계 2위 수출 대국으로 부상

-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세계 모든 국가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여기서 대두된 중요한 문제는 중국의 고속성장 지속 가능 여부와 2004년부터 급증한 무역흑자의 지속 여부임.

- 중국 정부는 중국의 지속 성장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속성장이 가능케 하는 정책들을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이장규 연구위원

내놓았으며, 인민폐 환율 문제도 정부에서 관리함.

- 최근 중국정부가 실시한 점진적인 인민폐 절상, 가공무역 제한, 수출환급 조절, 최저임금, 신 노동계약법 발효,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외자기업 우대 축소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환경이 바뀌고 있으며, 이런 노력을 통해 중국의 수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 수출을 축소를 통해 무역흑자를 줄이는 것 외에 개방 확대를 통한 수입확대도 필요함.

□ 한중 경제관계 변화

- 중국의 고속성장과 빠른 변화에 따라 한중 경제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음.
- 1992년 수교 후, 한국은 대중 무역흑자국이었으나 2004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는 줄어들기 시작했음. 한국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2~4년 내에 양국 무역은 균형을 이룰 것이며, 그 후에는 중국이 무역흑자국이 될 것으로 전망

□ 한중 무역·투자 문제

-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 기업의 중국투자도 변화 하고 있음.
- 정책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해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가 멈추지 않았고, 투자의 성격이 변화함. 하이닉스, LG, STX 등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한-중 FTA

- 한-중 FTA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 중국의 FTA는 그 범위와 수준, 내용이 다양하며 신축적으로 FTA를 사용했다고 생각함. 그러나 중국은 중국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않으면 향후 FTA 체결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함.

- 이는 WTO가입 후 중국이 고속성장을 이루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반증임.

<질의·응답>

질문 1: 2020년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답변 1:

경제성장은 일정한 주기가 있어 그 전망을 단정하기는 쉽지 않으나, 중국경제가 현재 처한 발전단계와 잠재력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의 장기발전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질문 2: 중국 금융 개방에 대한 전망은?

답변 2: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금융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방정책을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WTO 가입을 계기로 금융개방도 줄곧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개방과 경제발전 안정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함.

질문 3: 중국정부가 인민폐 절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2008년 하반기 인민폐 절상에 대한 전망은?

답변 3:

중국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취한 조치는 기준율 상향조정과 중앙은행어음발행, 금리인상, 인민폐 절상, 행정수단을 통한 대출규모 통제 등임. 물론 인민폐 절상이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임. 만일 물가안정을 위해 인민폐를 대폭 절상 한다면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 따라서 인민폐의 대폭 절상 보다는 경제전반의 경제성장 방식 전환(자원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등)을 통해 경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문 4: 국유기업 개혁과정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답변 4: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이미 진행되어 왔음. 주식제 개혁을 통해 외자, 민간자본을 흡수하였으며, 중국의 B주 주식시장 상장에 외국자본이 참여하고 있음. 국유기업은 개혁과정 중 대부분 국유기업은 주식제 기업이나 전형적인 민영기업으로 전환됨. 중국 4대 상업은행, 중국석유회사, 중국석유화학회사 등 대형기업들의 외자비중이 이미 상당히 높아졌으며, 일부는 뉴욕, 홍콩, 중국의 A주 시장에서 상장함.

현재 남아있는 국유기업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인 바, 하나는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유기업(국가경제안보와 관련되는 에너지, 전력, 금융 부문)으로 약 160여 개가 여기에 해당됨. 다른 하나는 성급, 시급 정부가 관리하는 국유기업인데, 이들 기업도 현대적인 기업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외자의 진입은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을 향상시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